

<토론문>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성격과 내용 체계 양상’에 대한 토론문

김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이관규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이관규 선생님의 이전 논문들을 통해 접했던 선생님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더불어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서긴 했습니다만 선생님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생각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저로서는 한층 더 선생님께 배우는 자세로 이번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면서 교육의 대상 언어가 Korean Language로 동일하지만 목적에 따라 다루는 문법 내용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통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설명 방법과 순서는 다를 수 있음도 주장하셨습니다.

줄고(2003)에서도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대상과 학습 목표가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줄고(2007)를 통해서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을 아우르는 표준 한국어 문법이 필요함을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문에서 몇 가지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과 선생님의 생각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을 선생님께 질의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1. 선생님의 발표문을 보면 모국어 문법 교육은 습득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어 문법 교육은 학습에 따른 방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rashen의 습득·학습 가설에 따르면 외국어 교육도 습득에 의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습득·학습 가설에 따라 모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교수·학습에 있어서 효과적인지요?

2. 줄고(2003)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국어 교육은 ‘언어에 내재해 있는 규칙과 질서’인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문법 지식을 활용해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즉 ‘지식으로서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 반면 외국어 교육은 해당 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구로서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법을 알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식으로서의 문법’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요? 즉 외국어 문법 교육에서도 ‘지식으로서의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교육 목표라고 말씀하신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어 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을런지요?

3. 학교 문법에서 문법에 대한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법에 대한 신념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법에서도 근본적인 불변의 문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최근 검정 중·고등 국어교과서를 살펴보면 최소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기준 없이 그 내용 체계가 각 교과서마다 상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4. 선생님께서는 ‘(7) 한국어 문법의 내용 체계’에서 학교 문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의 체계를 제시하셨는데 한국어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문법 체계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지요? 줄고(2009)에서는 현행 한국어 문법 교육이 초급 단계에서의 문법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비판하면서 고급 단계에서의 문법 교육까지 고려한 문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초급 단계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세부 항목들의 의미·기능을 익히고, 고급 단계에서는 기습적인 한국어 문법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체계를 익히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005)의 체계는 ‘문장 → 문법요소 → 단어 → 음운 → 담화’의 순으로, 기본 문장 구조를 익히고 문장 안에서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를 학습한 후 단어 차원과 음운 차원의 교수·학습의 중요도 순으로 문법 체계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고등학교 문법서에서는 문법 단위의 ‘작은 단위 → 큰 단위(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의 순으로 문법 체계를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문법 체계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합 문법 체계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보다 더 선생님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은 욕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향후 선생님의 생각이 보다 구체화되어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통일된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문헌

- 김재욱(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이중언어학』 22호. 이중언어학회.
- 김재욱(2007).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문법교육』 10. 한국문법교육학회.